

北韓의 靑少年 思想教育方法

鄭 世 九

(서울大學校 師範大 教授)

<차	례>
1. 序 論	3.1. 教授活動을 통한 方法
1.1. 研究趣旨와 目的	3.1.1. 解說과 說服의 方法
1.2. 研究方法	3.1.2. 問答의 方法
2. 北韓 靑少年 思想教育方法의 基本原則	3.1.3. 肯定的 模範으로 感化시키는 方法
2.1. 理論教育和 實踐教育의 結合	3.2. 課外活動을 통한 方法
2.2. 學校教育和 家庭教育, 社會教育의 結合	3.2.1. 革命的 組織生活의 方法
3. 北韓 靑少年 思想教育方法의 類型	3.2.2. 社會 政治活動의 方法
	4. 結論 및 韓國 思想教育方法 改善을 위한 提言

1. 序 論

1.1. 研究趣旨와 目的

오늘날 南北韓 사이의 개인적 수준에서의 思想的 對立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언제인가는 다가올 未來에 和戰 어느 편이든 간에 집단적 사상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敵對勢力인 北韓에서 현재 어떻게 사상적으로 무장한 靑少年을 길러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上記한 바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북한사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왔고 또 적지않은 연구들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 靑少年 사상교육의 理念이나 政策, 또 目的이나 內容에 집중되어 왔고 方法面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養成하느냐에 대하여 앞의 모든 教育要素

* 方法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朴容憲(1977)과 金在恒(1979)이 있을 정도이다.

들이 중요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직접 청소년들의 認知的, 情意的 領域의 習得과 變化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보다는 교수·학습의 방법과 그와 관련되는 교실 및 학교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설정된 교육 목표에 따라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口頭로 傳授만 했다고 해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本 研究는 교육방법面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북한 청소년 사상교육방법의 기본 원칙과 그 유형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新憲法(1972年 公布) 第39條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에 나오는 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구현 방법과, 어떻게 교양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기르고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였다.

1.2. 研究方法

본 연구는 북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상교육방법 즉 그들이 말하는 바 정치사상교양방법을 고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觀察이나 事例研究의 調査方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文獻研究方法에 의존하였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였던 인사와의 面談法이 부차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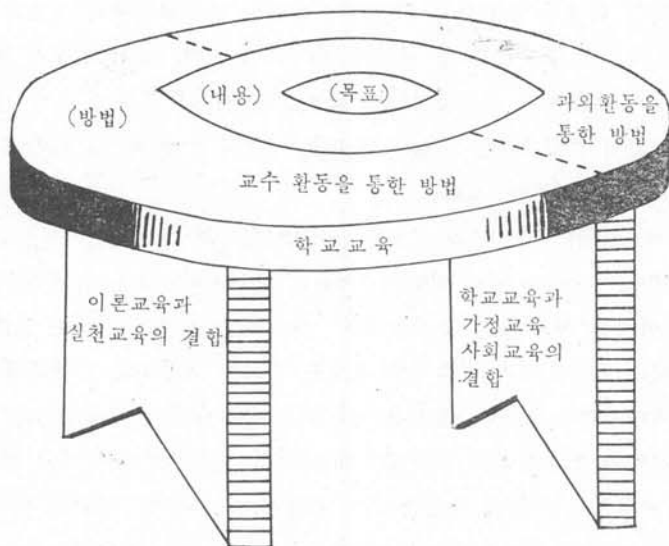
입수할 수 있었던 일차 자료는 『북한헌법』(19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등의 일반적 자료로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1975)과 같은 教育學 서적을 포함하였다. 또 최근 '80~'82年 刊의 『근로자』, 『사회과학』, 『천리마』 등의 잡지와 『로동신문』 등에 실린 사설, 학교방문기, 현장교사의 발표문 등이 조사되었다. 그 외에 1981年 3월 24일~4월 3일에 북한 학교들을 방문하였던 한 韓國系 美國人 教育專門家の 보고서가 도움을 주었고 또 1982年 7月 15日 부터 8月 1일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던 한 韓國系 美國人 政治學 教授와의 面談을 가졌다.

북한 청소년 사상교육방법에 대한 탐구를 위한 접근을 우선 학교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원칙을 찾아내었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떤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基本原則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그리고 方法類型으로는 교수활동을 통한 방법과 과외활동을 통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그 방법의 기본원칙과 방법의 유형과의 關係는 本節 끝에 그림으로 표시되었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制限點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대부분이 연구자가 북한의 교육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던 데서 나온 것이다. 一次資料에 의하여 어떤 교육이론이 標榜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全體主義的 閉鎖된 사회이기 때문에 理論과 實際의 연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현장교사의 발표문이나 실제 참관자와의 面談 結果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 北韓의 靑少年 思想教育 方法에서의 基本原則과 類型과의 關係



2. 北韓 靑少年 思想教育方法의 基本原則

2.1. 理論教育과 實踐教育의 結合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理論教育을 實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共產主義의 革命人材育成의 가장 중요한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 능력과 결부되어야 혁명 실천에 써 먹을 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7.9.5).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을 주장하는 根據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原則이 무엇보다 먼저 혁명과 건설에 써 먹을 수 있는 산 지식습득의 合法則的 要求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科學的인 教育方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가는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여 인류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투사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것이 실천을 반영하고 일반화된 것이므로 生動한 현실과 결부하여 학습하며 다양한 실천활동에서 적용되고 검열되어야만 비로소 쓸모있는 산 지식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직 理論과 實踐을 밀접히 결합하여 교육하여야만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인식적 흥미도 높아지며 그들이 객관세계의 본질과 원리도 명백하고 인상깊게 이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리영복, 1982).

둘째로, 同原則이 사회주의 교육의 사명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革命的인 教育方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 사명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노동계급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교육이 노동계급의 혁명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교육사

업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실천과 분리된다면 사람들을 현실생활에서 동떨어진 쓸모없는 ‘글뉘주’로, 思想意志的으로 나약하고 실천활동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게 되어 현실 생활과는 ‘담을 쌓고 이른바 ‘교육을 위한 교육’과 ‘지식 만능’을 위한 교육을 주는 부르조아적, 기회주의적 교육이 된다고 하였다(리영복, 1982: 60-61).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따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에서부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대한 견학, 그리고 생산노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산 노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사상을 단련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 이처럼 내세워지고 있는 원칙이 정말 그들의 “위대한 수령”이 창시한 사상이며 북한의 교육 현장에서 사상교육의 성과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수되고 있는가?

우선 이른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의 원칙은 이미 오래 前부터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도 독창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마르크스도 이미 그의 교육사상에서 「全面的으로 發達한 人間(All Round Development of Man)」속에서 동 원칙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진정한 인간은 분화되지 않는 노동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교육은 공장생산의 노동과정과 일치되어야 하며, 노동생산은 교육과정의 중심에서 경제적인 효용성을 이룩하여야 하며 자본주의계급사회에 잔존해 있는 학교학습 및 교육방법은 노동생산교육으로 전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Kernig, 1972:123). 또 그는 “노동은 인간 욕망의 세계를 창조하는 매개체이다. 즉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노동이다. 인간은 세계를 變革하기 위해 그의 세계에 희망을 심고 거기에 자신을 쉬게 하고 그 힘을 지배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Fromm, 1961:101).

同 원칙은 공산세계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서도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다. 소위 그들이 지적하는 ‘글뉘주’, ‘교육을 위한 교육’, ‘지식만능’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은 今世紀 初에 듀이를 중심으로 종래의 敎科中心教育課程을 經驗中心教育課程으로 개편하면서 이미 강조된 것이다. 듀이가 지적한 바 “참된 교육은 경험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신념”(Dewey, 1942:35)과 그에 입각하여 생활 경험을 존중하고 경험의 제조적과

재구성을 교육의 참뜻으로 생각한 그의 思想에서 이미 이론과 실천과의 결합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同 원칙은 이처럼 理論上으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實際 施行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학교교육사업에 黨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교원들 속에 침투하여 당 교육정책을 깊이 침투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즉 “책임 일군들은 학교에 자주 나가 교수 참관도 하고 실험실습조건도 알아보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이론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실천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실험실습과 견학, 답사를 조직하는 경우에도 교육학적 요구에 맞지 않게 간략화하거나 형식주의적으로 굵대려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리영복, 1982: 64)고 하였다.

이처럼 당의 독려나 직접적 간섭 없이는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교육원칙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 본 연구자가 면담한 북한을 직접 방문하였던 인사의 말이나 북한의 한 고등중학교 교장의 토론에 의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同 原則의 美名下에 생산 현장에의 노동동원으로 인하여 사상교양은 且置하고라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도 妨害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로동신문, 1980. 10. 13).

2.2. 學校教育과 家庭教育, 社會教育의 結合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과의 결합의 원칙은 학교교육으로서 부족한 점을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補完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결합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 原則이 인간의 교육교양은 인간 관계를 맺는 모든 單位에서 성립된다는 사상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나서부터 부모 형제와 관계를 맺고 가정 교육을 받게 되며 학교에 들어가서는 교원과의 관계를 맺고

학교교육을 받게 되며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成員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資本主義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에게 순종하는 노복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근로 인민들의 念願이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교육정책에서 유린된다고 본다. 따라서 階級的 對立이 있고 압박과 착취만이 지배하는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배합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둘째로, 同 原則이 人間改造의 特性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보다 훨씬 더 어려우며 그 이유는 사상의식은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는 달리 그 변화정도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기계로 잴 수도 없다고 한다. 또 사상의식의 발전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사리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참을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부터 학교를 거쳐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단위들에서 오랜기간 참을성있게 진행함으로써만이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 260-261).

이처럼 주장되는 근거에 따라 모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종된다. 우선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고 하여 모든 학부모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등을 자주 갖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사회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방송, 출판사,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켜 사회에서 학생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교양이 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결합의 원칙은 어떠한 理論的 根據를 지녔으며 또 實際로 北韓에서 사상교양적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결합시키는 원칙은 人間들을 造形하는

과정에서 모든 影響要素들을 통제한다는 데서 의미는 있다. 인간의 社會化(socialization)를 위한 動因(agents)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劃一的 人間形成을 위해서는 效果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同原則은 그 나름대로의 行動科學的 根據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가정과 사회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北韓과 같은 閉鎖된 社會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同原則은 自由世界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유세계에서는 학교교육이 자본가들의 노복을 기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가정교육과도 사회교육과도 배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자유세계에서 강조하는 人間主義教育(humanistic education)의 목적은 “학교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Silberman, 1970: 196)이며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며 행동하는 인간적이고 인간다운 全人的 存在(whole beings)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은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행되는 교육에 대한 비판에는 의미가 없으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人間敎化和 改造에는 效率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大多數의 統制된 국가들이 開放化의 추세로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單位에의 統制」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全面的 統制속에서 양성된 劃一的 人間들의 無批判的 意識構造는 一時에 崩壞되어 버릴 수 있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同원칙의 문제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3. 北韓 靑少年 思想敎育方法의 類型

3.1. 敎授活動을 통한 方法

敎수활동은 敎科 授業時間에 敎실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수업활동을 말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사회주의 교육이론』은敎수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해설과 설부의 방법, 문답의 방법 그리고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主張하는 各 方法의

理論의 根據 및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1. 解說과 說服의 方法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상 교양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학생들을 수긍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은 강압적 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 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합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합과 부족점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 方法이 人間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방법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내용을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方法으로서 사람의 自主性을 존중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 활동에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存在라는 데서 同 方法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나온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이와 관련지어 김일성도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어디까지나 꾸준하고 침을성 있는 교양과 해설 설복의 방법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김일성, 1968b: 448) 또 “당 사업에서 기본은……설복과 교양입니다. 알든 모르든 덮어 놓고 하라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반드시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리켜 주어야만 모두가 확신성 있게 그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김일성, 1968a, 521).

둘째로, 同 方法이 非強壓의이고 事理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이 소위 「착취사회」에서의 강제적 방법, 주입식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착취사회」에서의 사상과 이론은 非科學性과 虛僞로 일관되어 있는데 만일 학생들의 사고에서 자주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인식활동을 허용한다면 착취계급의 사상과 이론의 비과학성과 허위성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공산주의자는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민위에 군림

하여 명령하고 호령하며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대중을 꾸준히 해설 설복하여 자각적으로 혁명 투쟁에 나서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1975: 178).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대한 이와 같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성은 많은 謬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人間の自主性 尊重’과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해설과 설복을 하는 것’이 지니는 모순성을 지적하고 싶다. 피교육자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피교육자의 主觀的 思考 및 決定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도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끈기있게 설득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注入式 教化教育(indoctrination)으로서 자주성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스누크(I.A. Snook)도 지적한 바와 같이 教化라는 말의 가능한 基準들 즉 方法, 內容, 結果, 意圖 中에서 前三者는 教化라는 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단지 意圖만이 教化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때(Snook, 1977:39-90) 아무리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해설과 설복의 방법을 쓰더라도 意圖 자체가 주입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북한에서 사용하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피교육자의 주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一方的인 教化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그들이 주장하는 해설과 설복 방법의 정당성은 그들이 말하는 「착취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思想과 理論은 非科學性과 虛僞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억지에 대해서는 反論을 제기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쉰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서 “이미 이루어진 지식과 기술의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계속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판단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도록 한다”가 있고 또 現 教育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과학적 탐구능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여(문교부, 1981) 학생들의 자주적 思考能力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 수업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학생들의 創意力을 개발기 위한 탐구수업의 실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言及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이 지니는 正當性은 虛

構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방법 자체의 학문적 특성 및 근거는 고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서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실제 사용되어 온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보면 態度變化理論에서 認知的 一致理論(cognitive consistency theories) 혹은 均衡理論(balance theories)에 가깝다. 인지적 일치란 인지적 요소 가운데서 불일치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불일치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이것을 불균형의 상태로 설명하여 사람들이 균형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理論에 따르면 해설과 설복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속하여 어떤 방향으로 인지적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그에 一致하는 情意나 態度를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해설과 설복의 效果와 관련지워서 해설과 설복에 사용하는 메시지(message)의 出處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믿을 만한 출처를 지닌 메시지가 태도 변화를 더 촉진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해설과 설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자신에 넘치는 말로 표현한 것이 그 반대의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2. 問答의 方法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간에 또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는 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問答式 方法은 “당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고 또 그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답식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 方法이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똑똑히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습과정에서 수박 겉핥는 식으로 학습하여서는 문제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똑똑히 파악할 수 없으며 또 무턱대고 암기만 하여서는 산 지식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답식 학습방법에서는 많은 질문을 제기하여 문제의 파악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나 학습을 깊이있게 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로, 同 方法이 학습을 大衆 自身の 사업으로 전환시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느 학습이나 통제나 강요에 못이겨 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 이 학습방법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경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열의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셋째로, 同 方法이 학습에 대한 집단적인 통제와 상호간의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집단안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게 한다는 데 그 우월성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집단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자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여기에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답식 학습방법은 누구나 지명되면 무조건 나가서 대답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습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고 따라서 집단 속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로, 同 方法이 학습을 실천과 결부시킴으로써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성과적으로 組織 動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학습을 하는 원인은 혁명 실천에 실제로 써 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케 하는 데 있는데 문답식 학습에서는 내용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課業과 方途를 놓고 토론을 하므로 학습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고 하였다(천리마, 1980. 12:25-26).

이와 같은 문답식 방법에 대한 그들의 正當化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주입식 방법보다는 문답을 통하여 자기의 결함을 찾아내고 공동사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同 方法의 정당성은 그 主張들 自體間에 內在하는 矛盾性을 排除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同 方法을 통제나 강요에 못이겨서 하는 방법이 아닌 自發的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누구나 지명되면 무조건 나가서 대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답식에서는 集團 競爭으로 인하여 누구나 학습 열의를 지닌다고 하지만 어떤 學習現場에서도 학습의 열의나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들

이 무조건 답변을 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는 현장은 壓力과 統制를 加하는 전형적인 全體主義式 敎育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문답식방법의 정당성은 모순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方法 自體는 인간이 사용하여 온 敎授方法 中の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제대로 사용될 경우 人間의 反省의 思考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답식 방법의 理論的 根據는 전통적인 學習心理學의 兩大 主流의 어느 편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하여 학생들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만약 옳은 답을 하였을 경우 칭찬을 하여 주고 반대의 경우 잘못을 지적해 주고 고쳐주는 식의 문답식을 이끌 경우 그것은 전통적인 刺戟-反應理論 (Stimulus-Response Associationism)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反應에 대한 보상과 뒤따르는 강화작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교사의 질문이 단순한 單答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問題 事態를 제시함으로써 思考의 浬틀(springboard)을 제공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洞察(insight)을 얻게 한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게슈탈트 피일드 心理學(gestalt-field psychology)에서 나온다. 이것은 학습자가 문제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획득하거나 전에 가졌던 통찰을 수정하여 가는 것인데 이것은 聯想主義(associationism)에서처럼 결정론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니다. 개인적인 통찰의 발달은 한 문제에 대한 느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학습의 초점은 연상주의자들이 外的 行動에 둠에 반하여 이 피일드 심리학에서는 깨달음에 둔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답식의 경우 이미 기대하는 답을 지닌 채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이나 깨달음을 중시하는 문답식 방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문답식 방법이 하나의 探究의 過程으로 이끌어질 경우 그 정당성은 能動的 參與理論(active participation theory)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해설과 설복의 경우 학습자는 피동적인 입장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문답식의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문답이 진행된다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誓約하는 과정에서 또 인지적 요소를 뒷받침하는 정의적, 행동적 요소 때문

에 더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1.3. 肯定的 模範으로 感化시키는 方法

이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상 교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긍정적 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긍정적 모범은 사람들 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 것을 조장 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고 하였다.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同 方法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권과 생산 수단이 인민의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며 勞動階級과 協同農民, 勤勞인텔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 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악의 근원이 영원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낡은 것, 부정적인 것을 옹호하고, 새것, 긍정적인 것을 억압 말살하는 사회 물질적 조건이 없고 근로 대중이 언제나 새것, 긍정적인 것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창조된 긍정적 모범이 곧 대중의 공명을 받으며 온 사회에 빨리 일반화된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179). 김일성도 이와 관련지어 “착취와 억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 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모든 긍정적인 현상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공명을 불러 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 모범으로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김일성, 1968c:181).

둘째로, 同 方法이 우리 나라의 民族的 特性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침략자와 착취자를 반대하는 정의로운 투쟁에서 용감하였으며 권력이나 재물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겼으며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 처자를 사랑하며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서로 돕는 것과 같은 전통적 미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관념이 강하고 따라서 긍정적 모범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180). 김일성도 이와 관련지어 ‘먼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 생활을 하여 온 우리 인민은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도덕 관념이 강한 민족에게는 긍정적인 모범으로 감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하였다(김일성, 1968c:56).

셋째로, 학생들의 心理的 特性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새것에 대한 민감성과 탐구심, 훌륭하고 비범한 일에 대한 동경과 해보려는 지향, 모범에 대한 커다란 감동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을 잘 따른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청소년들은 새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제일 왕성하며 훌륭하고 비범한 큰 일을 해보려는 영웅심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에 깊이 감동되며 그 모범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라고 하였다(김일성, 1968c:42).

위에서 제시한 바 그들이 주장하는 세 根據 中에서 둘째, 셋째의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이유를 찾거나 모든 나라, 어떤 민족에게나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反論의 여지가 별로 없고, 첫째번 正當化에서 그들 사회에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모범으로 보편화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위배되는 것이다. 구체적 증거를 들면 협동농장에서의 농민들의 노력 착취는 作業班간의 경쟁운동, 分組간의 경쟁, 논밭 가꾸기 운동, 부림소마다 30가지 이상 갖추기 운동, 모닥불로 논밭의 서리를 녹이는 운동, 빈손 퇴치 운동, 십자거릿대 운동, 붉은 주머니 차기 운동 등 무수히 많고 국민대중에 대한 억압은 의식주생활의 통제와 사상검토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人民班組織, 5戶擔當制, 職業 選擇規制 그리고 거주지 이전 및 여행제한 등을 통하여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의 정당성 및 그에 대한 비판을 하였지만 同 方法은 최근에 와서 ‘순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또 소위 그들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으로 불리는 金正日의 아이디어로 脚色되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그들이 독창적인 사상개조운동이라고 부르는 ‘순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리동초, 1982:24-29).

첫째로, 同 방법이 주체적인 사상론을 자기의 사상리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동 방법이 우리 식 대로 살아 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구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로, 동 방법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균중노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바 정당성은 그것 자체가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도 별로 없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소위 당중앙이 주장한 바 '우리 식 대로 살아가라'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된 점은 특이한 것이며 "우리는 지난 시기에도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덕에 살아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식 대로 살아 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식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었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제시하는 정당성은 별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모형을 따라 배우는 方法 자체는 行動의 模型을 제시하고(human modeling) 이에 대한 동일화(identification)를 요구하는 것으로 앞에서 본 해설과 설복의 방법처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외부 세계와 거의 차단된 폐쇄된 사회이고 정치, 경제, 사상, 생활의 통제를 통하여 一元化된 體制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 밖에서 보고 듣는 제사회현상과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범을 제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심리학에서 認知·情意一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논의되는 社會化(socialization)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실 환경 속에 모범적인 例를 많이 전시하기도 하고 교사 자신이 모범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직접적인 強化作用(reinforcement)이 없이 모형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학습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강화보다도 학생들의 태도 형성에 미치는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시청각매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방법에서다.

3.2. 課外活動을 통한 方法

과의활동은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받는 教室授業 外에 학교의 안팎에서 벌이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 교수활동이 주로 교사에 의하여 주도되는 教室內 活動이라고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교실 밖에서의 活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소년단 및 사로청 조직 생활을 통하여 이를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외 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후대들을 革命的 世界觀이 선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教授活動 즉 그들이 말하는 ‘교수교양과정’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에 ‘정치사상적 단련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교육사업과 조직생활 배합의 필연성이다.

과외활동을 통한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들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한 방법’과 ‘사회정치활동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사회과학원, 1975: 233) 여기에서는 등 방법들에 대해 그들이 지적하는 正當性을 살피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3.2.1. 革命的 組織生活의 方法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조직적 생활에 가담케 함으로써 사상 교양의 목표를 달성케 하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 교양을 받고 혁명적 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고 하였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 ‘넓은 教育方法’은 이른바 정치로부터의 교육의 독립을 표방하면서 학생들을 사회와 인민,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는 관심없는 글뉘주로, 자본가 계급의 노복으로 전환시키는 데 복무한다고 하였고(김일성, 1971a) 또 김일성도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이나 많이 읽으면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직 생활을 떠나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혁명가로 단련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김일성, 1971b).

둘째로,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인 강한 혁명적 조직성이 오직 조직생활을 통하여서 키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노동계급에게 있어서 조직성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필승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또 조직성은 그들 수령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받는 일정한 조직의 성원으로서는 조직을 사랑하

며 조직의 이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성이 오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룩되는 이유는 그 생활이 온갖 비조직적이며 無規律的인 行動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직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이 유일한 조직규율에 의하여 사고와 행동에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성과 조직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 241). 김일성도 이와 관련지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 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 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조직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라고 하였다(김일성, 1972:468).

셋째로, 이 방법은 강압적으로 사상 교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는, 부르조아교육학에 의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때리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하고 이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물건,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처벌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학생 자신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으로 교양시킨다고 하였다. 또 뒤이어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조직생활을 통하여 좋은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것은 그들의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소년단, 사로청 생활을 계단별로 하게 한다면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이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품성이 싹트고 형성 발전되며 조직적 생활기풍에 물젖게 된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 242).

위에서 본 조직생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에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것 및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前者는 소년단과 사로청 생활에서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 실행한 바를 보고하고 다시 분공을 받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고, 비판은 낡은 思想殘滓, 學習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낱알이 찾아내어 그 원인을 명확히 할 뿐 아니

라 그 克服方途까지 찾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방법의 正當化나 구체적 방법은 적지 않게 自由世界教育에 대한 근거없는 사실의 날조 위에 세워지고 있다. 자유세계의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는 관심없는 지식만의 교육, 자본가계급의 종으로 만들려는 교육이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혁명적 조직성이 바로 그들의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철저한 예속물로 만들려는 策略임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統一性 자체가 바로 이를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셋째 번의 正當化에서 지적한 ‘부르조아教育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유세계에서는 동 교육학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때리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자유세계에서는 體罰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統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북한 교육의 통제 체제는 소년단과 사로청 조직하에서 그리고 학교 자체가 당정책의 무조건 승복과 수행을 요구하는 黨細胞委員長의 지휘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위배되는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을 사상교양시키는 그들의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끊임없는 條件化(conditioning)로서 또 作動的 條件化(operant conditioning)로서도 해석될 수 있다. 소년단이나 사로청 조직으로부터 어떤 과제를 맡고 그것을 수행하고 보고하고 칭찬을 받고 또 다음 과제를 맡는 과정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조건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향하는 비판을 의식하며 행동, 생활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 思想鬭爭을 계속하는 것을 작동적 조건화로도 볼 수 있겠다.

3.2.2. 社會 政治活動의 方法

이 방법도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한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서 학생들을 사회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혁명적 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려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사회주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 진선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 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할 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 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 정치활동의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그들은 첫째로, 혁명적 세계관은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교육이론에서는 이 방법은 후대들을 실천투쟁에 인입시킴으로써 산 정치활동가로서의 사상과 풍모를 빨리 갖추어 나가게 한다고 하였다. 혁명적 실천투쟁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 속에서만 끊임없이 단련되고 혁명가로, 산 정치활동가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사회과학원, 1975: 249).

둘째로, 동 방법이 학생들의 年齡心理的 特性에 맞는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청소년 시기에는 지식에 대한 탐구력과 영웅심도 생기기며 사회 활동을 위한 욕망이 강하고 대중 앞에 나서고 싶어하며 새것에 대한 민감성, 정의감, 진리에 대한 탐구력이 강한 청소년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을 좋은 방향으로 조장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그의 저작선집에서 “학생들의 머리는 사진기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며 이때에는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몸도 날마다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이 시절에는 많은 것을 빨리 알자고 하고 배우려 하며 영웅심도 생기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며 어디에 나서고도 싶어 합니다. 더우기 학생 시절에는 새것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망도 많습시다……”라고 하였다.

셋째로, 同 方法이 현실과 결부된 산 지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실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조선의 자연자원과 기후 풍토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을 사회 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당정책의 正當性, 偉大性과 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도 그의 저작선집에서 “서적이나 학교는 청년들에게 지식을 주며 선진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줄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서적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실생활과 결부되어야 하며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적 투쟁에서

단련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 이와 같은 정당성에 따라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정책을 근로자들에 해설 선전하는 것,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 실천에 적극 입입하는 것, 그리고 선전대 활동, 좋은 일하기 운동 등등이다. 이와 관련지어 최근 한 인민학교 방문기에서 사회정치활동의 일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아버이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에서 가르쳐 주신대로 록화근위대, 소년선전에술대, 위생근위대, 꼬마계획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회 정치활동과 좋은일 하기 운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이 학교 학생들이 모은 파동으로 100대의 변압기를 만들어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냈더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강철성, 1982:66-72)라고 학교 현장의 활동에 감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사상 교양의 방법으로 사회 정치활동을 강조한 것,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바 정당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60年代 후반기에 동구 공산권에 붙어 닥치기 시작한 자유화물결이 북한에 전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급적 무미건조한 학교수업에서 탈피하여 정치활동을 통한 학교 생활의 다양화를 꾀한 것은 그들의 헤이되어 가는 사상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앞에서 정치활동의 내용으로 지적한 바 다양한 활동들은 그들의 학교를 하나의 사상교양소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다. 이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인민학교 학생인 그들의 소년들에게 얼마나 과중한 요구를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김일성, 1971c).

첫째,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 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년단원들은 학교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년단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넷째,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원수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다섯째, 소년단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힘쓰는 집단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

와야 합니다.

여덟째, 소년단원들은 사회 정치활동을 잘 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소년단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열째, 소년단원들은 세계 여러나라 소년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속에서 북한의 청소년이 正常的 학교수업 外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강요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도 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소년단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이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정치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사회심리학에서 찾는다면 能動的 參與理論(active particip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직접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公的인 誓約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태도가 더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4. 結論 및 韓國 思想教育方法 改善을 위한 提言

지금까지 우리가 考察한 북한의 정치사상교육방법은 그것 자체가 어떤 바람직한 시민상을 기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全體主義教育의 전형적 슬로우진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원칙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더구나 그들이 내세우는 教育方法의 正當化는 상당히 많은 自由世界 教育에 대한 偏見과 捏造 위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상교육방법이 지니고 있는 強點과 弱點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강점은, 물론 이것은 全體主義國家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의 思想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要因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 『로동신문』 82.6.6. 사설, “소년 단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

사회화의 단위이며 배경인 가정, 학교, 사회를 모두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도 教室內에서 벌어지는 教授活動에서부터 教室外에서의 課外活動까지를 전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方法類型을 보면 理論上으로 效率的인 思想形成의 過程과 方法을 전부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의 네 유형으로 밝혀진 蓄積模型(The Accumulation Model), 人間相互轉移模型(Interpersonal Transfer Model), 同一視模型(Identification Model), 그리고 認知的 發展模型(Cognitive-developmental Model)이 거의 전부 그들의 方法類型 속에 들어 있다 (Hess and Torney, 1967:19-22).

다른 한편,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약점은 가장 큰 강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 思想形成의 閉鎖的 統制는 統制의 秩序가 一部 흔들릴 경우 全體가 一時에 崩壞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점점 확대되는 自由化와 世界化의 추세 속에서 통제의 벽이 깨어져 敎育자가 外部에 露出될 경우 그들이 형성해 온 모든 思想的 意識 構造는 일시에 그 기반을 잃을 수 있다. 또 劃一的 思想敎育의 核을 이루고 있는 對象이 死去하거나 退去할 경우 모든 사상敎育은 그 존재의미를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집권층이 南北韓의 交流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나 김정일의 계승과 그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사상敎育방법은 많은 強弱點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생산되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능히 사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바람직한 민주국민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 몇 개의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의 사상敎育을 너무 의식하고 短見으로 우리 청소년 敎育을 이끌려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어떤 敎育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북한에서 소위 철저한 '빨갱이' 敎育을 시키니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極右的인 완벽한 民主市民을 길러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철두철미한 反共敎育, 勝共敎育을 실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본 철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한 인간을 기르는 과정에서 모든 영향

요인을 통제할 경우 그 강압적 요인이 사라지면 그의 억제로 형성된 가치관이나 태도는 훨씬 더 큰 葛藤 및 混亂 속에 빠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융통성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사고기능을 신장시켜야 하겠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國家觀 確立도 국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사고를 거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온 사상적 흐름을 광범하게 파악케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풍부한 사상적 토대 위에 확고한 主見과 眼目을 지니게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넓은 의미로 學校 및 教室의 분위기, 좁은 의미로 學習指導方法의 改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다. 教育의 成果는 단순한 교육목표의 설정과 내용 주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분위기는 一部 學科目的 內容習得과 上級學校 進學準備校로서의 성격과 색채가 너무 강하다. 따라서 思想訓練과 教育을 위한 분위기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의 개선이 요청된다. 동시에 학습지도방법의 개선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도덕과와 사회과의 경우, 물론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어떤 점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강의식·주입식이다. 앞에서 지적한 복한의 방법과 비교하면, 교수활동을 통한 방법에서 해설과 설복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 가장 많고, 긍정적 모범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약간 사용되고 있고, 과의 활동을 통한 방법은 거의 도외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교육기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의 지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探究式授業方法이 사용되어야겠다. 이는 앞 提言에서 지적한 정치적 사고 기능의 신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좁은 教室에서 해방시켜 校内外에서 과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생활훈련 기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강철성

1982 『행복한 꽃봉오리들, 명예의 붉은 기 강안인민학교를 찾아서』, 『천리마』, 1982. 6, 평양, 문예출판사 : 66-72.

김일성

- 1968a 『김일성 저작선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b 『김일성 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c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1a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71b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한 데 대하여」, 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c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2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金在恒

- 1979 「北韓政治思想教育的 特徵에 관한 研究」, 『自由아카데미論叢』, 제 9집.
 로동신문(북한)
 1980 「김영란동지의 토론」, 1980.10.13.

1982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 1982.6.6. 사설.

리동초

- 1982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우리 식의 독창적인 대중적 사상개조운동」, 『사회과학』 제 3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24-28.

리영복

- 1982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옴은 결합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육성의 중요한 방도」, 『근로자』 6호, 평양, 근로자사 : 60-61.

문교부(대한민국)

- 198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박용현

- 1977 「北韓의 政治教化教育」, 『北韓教育論』, 서울, 북한연구소.

사회과학원(북한)

-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북한)

- 19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천리마(북한)

- 1980 「문답식 학습방법」, 『천리마』, 평양, 문예출판사, 1980.12 : 25-26.

Dewey, John

- 1942 *The School and Society*, New York, Backer and Taylor Co.

Fromm, Erich

- 1961 "K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 of 1844," in Erich Fromm,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Frederick.

Hess, R.D. and J.V. Torney

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Kernig, C.D.

1972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Vol. III, New York, Herder & Herder.

Silberman, Charles E.

1970 *Crisis in the Classroom*, New York, Random House.

Snook, I.A.

1977 *Indoctrination and Education*, 윤팔중 역, 『敎化와 敎育』, 배영사.